

전일동향

전일대비 9.80원 하락한 1,360.60원에 마감

14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9.80원 하락한 1,360.6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달러-원 1개월물 하락을 반영해 전 거래일 증가 대비 7.40원 하락한 1,363.00원에 개장했다. 미국 PPI 상승률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 상승으로 환율은 하락 출발했다. 장 초반 환율은 위안화 절상 고시의 영향으로 낙폭을 확대했다. 역외 매도세 유입으로 환율은 1,359.10원까지 하락했다. 오후장에서는 저가 매수 유입으로 1,360원대 안팎으로 횡보하며, 1,360.6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5.7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4.66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63.00	1364.80	1353.70	1360.60	1361.40
엔화	923.32	925.21	910.66	911.19	-	
유로화	1498.34	1499.10	1489.58	1492.73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26	-6.48	-14
결제환율(수입)	-0.65	-5.63	-12.27	-22.02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미 소비, 고용지표 개선.. 1,36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5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60.60) 대비 4.85원 상승한 1,362.9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소비,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완화에 상승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7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 증가하여 예상(0.6%)을 상회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22.7만명으로 컨센(23.5만명)을 하회했다. 경기침체 우려를 일축하고 달러화 강세를 이끌었다. 이에 연준의 9월 빅컷 기대는 30% 아래로 축소됐다. 미국 2년물은 13.50bp, 10년물은 7.70bp 상승해 각각 4.097%, 3.915%를 기록했다. 역내외 롱심리 회복 및 거주자 해외주식투자 환전수요의 영향으로 금일 환율은 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입업체 저가매수도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수출업체 이월 네고,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수 등은 환율의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59.67 ~ 1369.33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901.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85원 ↑
	■ 美 다우지수 : 40563.06, +554.67p(+1.3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4.06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0833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